

[회의록]

과제명	구술사에서 공공역사 전환: 이론적 쟁점 검토와 실천적 대안 모색		
연구책임자	Park Christian Joon (박준규)	참석자수	9명
일시	2023.9.8(금) 14:00 ~ 16:00	장소	Zoom 사용
참석자명	내부: 박준규, 안승택, 윤택림, 황현정, 김태인, 심종우, 김아람, 한봉석 외부: 김영미 (국민대학교), 허영란(울산대학교)		
회의 제목	대학에서의 공공역사 프로그램		
회의안건 및 회의내용	김영미 발표 - 2019년과 2023년 국민대학교에서 진행한 현장연계수업의 사례를 통해서 대학에서의 수업이 공공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지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. - 구체적으로 국민대학교 역사학과의 한국현대사 수업과 미술학부의 공동체미술 수업을 정릉3동 현장과 연계하는 ‘생애사아트북만들기’ 수업이 소개되었다. - 이 수업의 진행과정과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성장과 지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발표되었다. -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른 교수들의 유사 수업의 사례가 있는지,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는지, 구술자료 아카이빙 방법에 대해서 질문의 논의가 있었다. 허영란 발표 * 대학 교육과정으로 공공역사가 양성을 위한 교과 개발 현황 -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‘구술사연습’ ‘공공역사와 지역사회’ 신설 및 운영 현황 - 대학 내부의 어려움 : 경직된 학사일정, 전공간 융합 - 대학 외부와의 협업 :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관계 형성 - 역사학 전공의 정체성과 공공역사 교과의 관계 - 실습 예산 확보 방안		

- * 지역사회 공공문화콘텐츠와 공공역사의 협업 가능성
 - 문화원, 문화재단, 도서관, 박물관 등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 현황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 형성 필요
 -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의 어려움
- * 사례소개
 - 옹기마을 주민 구술인터뷰 및 이야기책 발간
(<외고산 시비골 온봉백 - 옹기마을 이야기>)
 - 북구 염포마을 주민 구술인터뷰 및 전시, 출판
(‘포구와 사람: 이야기와 그림 전시
(‘포구와 사람들- 염포의 기억과 그림’)
- * 지역사 및 지역사회와 공공역사
 - 구술사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공공역사 연결